

현실판 '원더우먼'



▲ 트럭을 밀고 있는 레슬리와 레슬리를 찾은 회사 대표. 사진=유튜브(News Wire) 캡처

눈길에 미끄러지는 트럭 운전사를 도운 여성이 현실판 '원더우먼'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스코틀랜드 카우테비스에 사는 살린 레슬리(33)는 지난 9일 눈 덮인 거리를 지나던 중 얼어붙은 눈 탓에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유명 유제품 제조업체의 트럭과 마주쳤다. 자칫하면 트럭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를 본 레슬리는 각각 10살·2살의 딸을 안전한 곳에 서 있게 한 뒤, 트럭 뒤로 다가가 트럭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자리를 맴돌던 트럭은 무사히 언덕 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 모습은 당시 언덕 인근에 사는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레슬리를 본 사람들은 그녀를 여성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원더우먼'에 비유하며 놀라워했다. 가파른 언덕에서 거대한 트럭을 홀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레슬리는 트럭이 언덕 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지만 트럭 운전사와 해당 유제품 제조업체는 수소문을 통해 그녀를 찾아냈다.

업체 회장인 로버트 그레이엄은 "레슬리가 트럭을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현실 속 원더우먼이 확실하다. 다만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우리 회사는 감사의 의미로 그녀에게 1년 동안 우유와 고단백 유제품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레슬리는 "위험한 순간인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누군가 곤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돕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두 팔 없는 16세 발레리나의 꿈

두 팔 없이 태어났지만 자신의 꿈을 좇아 발레리나가 된 소녀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출신의 빅토리아 브에노(16)는 선천적으로 두 팔 없이 태어났다. 그런 빅토리아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은 냉혹하기만 했다. 빅토리아의 엄마 완다(39)는 "시골에서 태어난 빅토리아를 구경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빅토리아는 그녀의 춤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알아챈 한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발레에 입문하면서 자신의 꿈과 마주했다. 완다는 "아이가 불과 5살 때 처음으로 발레 학원에 데려갔다"면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이는 기우였다"고 회상했다.

빅토리아는 발레를 통해 힘차게 비상했다. 빅토리아는 "무대에서 춤을 출 때 팔은 나에게 디테일에 불과하다"면서 "어릴 때부터 양치질은 물론 선반의



▲ 공연 중인 빅토리아. 사진=유튜브(Inside Edition) 캡처

물건을 고르는 것까지 발로 해온 것이 유연성과 힘을 필요로 하는 춤사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장애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꿈을 좇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들은 "빅토리아의 무한도전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은 1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빅토리아가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석 54개 삼킨 소년 '구사일생'

자석을 삼키면 인체도 자석처럼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성(磁氣)을 갖게 되는지 알아내려고 수십 개의 자석을 삼킨 소년이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 프레스트위치에 사는 라일리 모리슨(12)은 올해 첫날 자석 한 묶음을 삼키고 배에 금속이 붙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사흘 뒤 다시 한 묶음을 입에 넣었다가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소년의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아들이 배가 아프다며 자석을 삼켰다고 했다.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들이 실수로 자석 두어 개쯤 삼는 줄 알았는데 아들의 뱃속에는 무려 자석 54개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소년은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창자에 구멍이 나 튜브에 의지해 2주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어머니는 "아들이 과학에 폭 빠져 평소에도 실험을



▲ 소년의 몸속에서 나온 자석과 수술 받은 소년. 사진=유튜브(BelonaBoy infotainment) 캡처

좋아했다. 하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너무 바보 같긴 한데 재미 삼아 한 일이라 뭐라 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키면 몸 안으로 들어간 자석이 장내에서 서로를 끌어당겨 천공과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소년을 치료한 의료진은 "자석을 삼키면 매우 위험하다. 예전에 어떤 아이는 장 일부를 제거해야 했다. 소년은 자석 54개를 삼킨 것치고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